

 방송통신위원회		<h1>보도자료</h1>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
보도 일시	2022. 7. 15.(금) 10:00	배포 일시	2022. 7. 15.(금) 10:00		
담당 부서	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	책임자	과 장	천지현 (02-2110-1270)	
		담당자	사무관	김은수 (02-2110-1274)	

방통위, 2차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 17곳 선정 - 텔레비전광고 등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으로 중기 인지도 높인다 -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한상혁)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사장 이백만)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의 2차 지원기업 총 17개사를 선정했다.

중소기업 17개사 중 텔레비전광고 지원 대상에는 알비에치(주)(화장품 제조업체로 광고품목은 헤어오일) 등 12개사가,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(주)코리아정보통신(텔레비전제조업체로 광고품목은 테이블오더디스플레이) 등 5개사가 선정되었다. 이들은 건강기능식품, 보안서비스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해 방송하게 된다.

※ 선정기업은 신청 누리집(<http://www.kobaco.co.kr/smad>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'22년 지원대상은 총 47개사이며, 1차 선정된 30개사는 방송광고를 제작·송출 중임

이번 2차 지원은 지난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, 총 82개 중소기업이 신청하였다.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77개사(텔레비전광고 53개사, 라디오광고 24개사)를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였다.

2차 신청 경쟁률은 텔레비전광고 4.5:1, 라디오광고 5.6:1로, 지난 2월에 공모한 1차 경쟁률과 비슷하나, '22년 전체 경쟁률은 전년에 비해 텔레비전광고는 71%, 라디오광고는 189% 증가해 방송광고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.

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텔레비전광고는 제작비의 50% 범위 내에서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,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%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. 선정기업 중 희망하는 기업은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(컨설팅)도 제공받을 수 있다.

한상혁 위원장은 “방송광고지원을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품 인지도를 높여 매출에 보탬이 되고 방송광고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 며,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.” 고 밝혔다. 끝.

